

PL사고통계 (2004년도 국정감사결과)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부진원인 및 PL사고 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후 이와 관련된 사고는 크게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보험 가입은 지지부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결과 제기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04년 상반기 PL사고는 총 1천2백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74건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PL보험 가입은 8천45건에서 8천3백56건으로 3.8% 증가하는데 그쳤다. 생산물배상책임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피해 가능성만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PL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식부족과 미흡한 대응 태도라고 할 수 있다 PL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PL사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체의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90%가 넘는 대다수 업체들이 PL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에서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요구금액도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PL 단체보험에 가입한 업체만해도 최근 2년 동안 4,000여개 정도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체가입을 하면 개별가입보다 28% 정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과 미흡한 대응 태도라고 할 수 있다. “PL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의식을 갖고 결함 최소화에 힘을 쏟는 한편 PL관련 분야에 회사 순이익의 10%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L(생산자 책임) 사고 작년비해 69%증가

〈 사례 〉 PL단체보험 사고접수 현황을 보면 2004년1월부터6월까지 198건이 사고접수돼 지난해 전체 건수에 비해69%나 증가했으며 연중 누적치로 보면 세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압력밥솥 폭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불량만두 사건, 새집증후군 배상 결정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PL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인식부족과 보험료 부담 때문에 PL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제품 수명이 끝난 뒤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PL보험 가입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제조업체는 아직까지 PL보험 가입에 대해 심적 물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PL보험 가입 업체에는 신용평가를 할 때 우대하는 등 별도의 지원정책을 내놓아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